

오피니언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승효상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문화행사 중 하나인 베니스비엔날레는 1895년에 시작되었다. 그 역사적 전통을 자랑하는 만큼 해마다 내거는 주제 또한 세계에 던지는 과장이 크다. 21세기가 시작되는 2000년에 열린 베니스건축비엔날레의 주제는 '덜 미화적인, 더 윤리적인(Less Aesthetics, More Ethics)'이라는 문구였다.

나도 그 전시회에 초청을 받아 참가하였지만, 이 주제를 접하고는 적지 않게 놀랐다. 내가 아는 한, 서양건축사에서 윤리적인 단어는 그리스시대 이후에 사용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이었다. 윤리라는 것은 나와 남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일진대 서양의 건축은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우리는 우리 선조들의 덕목이었다. 우리의 선조들은 집을 지을 때 늘 자연과 건축과 인간 간의 관계를 염려했으며, 집은 그 관계를 잇는 고리의 역할이었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집의 형태는 기와집, 초가집 뿐이었지만 내부의 공간은 주변의 조건에 따라 변화가 무쌍하였다.

그러나 지난 시대 우리는 근대화가 서

양화인 줄 착각하게 되면서 이 아름다운 윤리의 방식을 추방하고 서양이 일러준 미학의 성취를 위해 열심히 매진하고 있는데, 이제 서양은 윤리를 끄집어내며 새 시대 새로운 화두로 삼는다고 하니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서양건축사 책을 펼치면 처음부터 끝까지

스펙타클의 사회

지, 신전과 성당, 왕궁이나 별장, 경기장, 공연장 등 기념비적 건축물의 나열이며, 이들 건축에 대한 형태와 비례, 장식이나 재료 등에 관한 미학적 해설로 일관한다. 즉 한 건축물 자체만의 존재방식과 그 역사 서양건축사라고 할 수 있다.

그 건축물이 스펙타클할수록 더 많은 지면을 차지하며 그 시대의 중요한 성취로 기술되는 게 당연시되었다. 이 스펙타클한 풍경의 역사는 적어도 6천 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거대 구조물인 지구라트가 우르에 세워졌고, 주변을 압도하는 그런 풍경 만들기는 통치자의 절대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가장 유효한 방법이었다. 예컨

대 로마시대에 전장에서 개선한 장군이 으레 세우는 경기장이나 신전들이 다 그런 연유였다.

도시 또한 마찬가지여서, 스펙타클한 건축물을 곳곳에 배치하고 이들을 대각선의 각도로 이어서 가장 스펙타클한 광경을 확보한 곳에 그 도시를 지배하는 자의 궁전을 두면, 이게 바로 봉건시대의 도시가 된다. 르네상스시대 전 유럽에 걸쳐 이 상도시란 이름으로 유행처럼 지어진 모든 도시들이 그러했으며, 베르사유를 필두로 한 바로크의 도시들이 이르러 절정을 이루었다.

현대의 신도시들도 이 범주에서 벗어나

지 않았다. 여전히 중앙로가 있고 중앙공원 중앙광장 그리고 중심지구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현대도시라면 이들 또한 봉건적 잔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모두가 스펙타클의 사회를 꾸무고 있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어 서양은 이제 그 스펙타클의 역사를 폐기하자며 윤리의 사회를 주장하고 나온 것이다.

문제는 우리의 사회다. 서양문명의 파편이 종속되어 우리의 건축과 도시를 광개천지 오래지만, 스펙타클 사회에 대한 추종은 이미 도를 넘었다. 특히 민선지방자치

시대가 도래한 다음, 임기 내에 가시적 성과를 내세우기에 혈안이 된 민선단체장들의 스펙타클한 풍경 만들기를 위해 우리 사회는 너무 많은 대가를 치르고 있다.

곳곳에 랜드마크, 테마공원, 혁신도시, 기업도시, 무슨 프로젝트 등으로 도시의 풍경은 과거가 되었고 우리의 아름답던 산하와 마을들은 죄다 삼십억 분탕칠로 미증유의 몰살을 앓고 있다.

지난달 어느 중앙일간지에서 80년대 이후 조성된 건축물 중 가장 좋은 것과 나쁜 것 각각 다섯 장소에 대해 식견 있는 건축가와 건축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조사한 적이 있었다. 가장 나쁜 다섯 예로, 광화문광장, 청계천복원, 예술의 전당 이 각각 상위에 선정되었다. 모두 역대 정권과 단체장이 야심 차게 추진한 스펙타클의 대표적 보거였다.

기드보르는 다시 이렇게 이야기한다. 스펙타클은 기만과 허위를 공통적 기반으로 서며, 역사와 기억을 마비시키는 현존하는 사회조직이다. 그래서 서양은 이제, 그들이 만드는 도시와 건축의 목표는 미학이 아니라 윤리라고 했으며, 이미지가 아니라 이야기여야 한다고 했고, 완성된 게 아니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여전히 보이는 것 만들기에만 몰인한 자제단체장들이 꿈 씹으며 들어야 할 말 아닌가.

<2011광주디자인비엔날레총감독·건축가>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광주교육 균형성 잃을까 걱정된다

광주시교육청이 9월 정기인사에서 주요 보직을 전교조 출신 및 진보성향 인사들로 채웠다고 한다. 시·중·고 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사와 교육정책의 책임자급에 전교조 출신이나 같은 성향의 인사를 대거 포진시킨 것이다.

광주교육의 변화는 전교조 출신인 장휘국 교육감이 지난해 선거에서 당선됐을 때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다. 시민들 역시 지나치게 관료화·보수화된 시 교육에 대한 개혁을 열망했고 그것이 전교조 출신의 교육감 배출로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교육이 지나치게 이념 편향으로 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학교 현장을 특성이념의 실험대나 정치 투쟁의 장으로 삼아선 결코 안 된다. 학교 교육이 노조 입김에 좌우되는 것도 옳지 않다. 개혁과 변화는 필요하되 교육의 본령마저 흔들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이런 점에서 광주교육청의 9월 정기인사는 우려되는 면이 없지 않다. 중등

교육 장학관과 교원인사 과장은 전교조 출신이 꽤 많다. 중등인사 관리담당에는 진보성향의 여성 교감이 배치됐다. 장 교육감 체제 출범과 함께 임명된 정책 기획담당관까지 포함하면 주요 보직 대부분은 전교조 출신과 진보 성향의 인사가 차지한 셈이다. 광주교육이 진보교육의 실험장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바로 이 때문이다.

수능이 불과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진학정보시스템에 경험이 부족한 중학교 교감으로 교체한 것도 신뜻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입학사정관 전형이 1개월 앞당겨졌고 시험범위, 입학전형 다변화 등을 들 수 있는 그 어느 때보다 변수가 많아 더욱 그렇다.

교육은 안정과 균형이 중요하다. 급격한 변화나 이념편향은 교육현장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장 교육감은 광주교육에 대한 시민의 걱정이 기우(杞憂)가 될 수 있도록 균형을 잃지 않아야 할 것이다.

광주교류센터 '임대료'에 거리 내몰려서야

광주·전남지역 외국인들의 소통 역할을 해온 광주국제교류센터가 열악한 재정 탓에 거리에 내몰릴 처지에 놓였다. 현재 입주해 있는 광주시 동구 금남로 1가 소재의 전일빌딩이 조만간 월할 예정으로 있어 새 장소를 물색해야 하지만 그에 상응한 임대료를 마련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1999년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인 광주국제교류센터는 외국인들에게 언어·문화교육, 지역정보 제공 등을 맡고 있는 유일한 공간으로, 광주시로부터 연간 위탁사업비 1억 원, 매달 225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금으로는 현재의 사무실 크기와 비슷한 입지조건인 다른 사무실을 빌리기가 어렵다는 게 교류센터 측의 고민이다. 매달 1000원에 달하는 외국인들이 교류센터를 찾고 있는 만큼 이들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과 도서실, 사무실 등이 들어가기 위해서

아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광주시는 일단 교류센터 측과 이전 후보지 문제에 협의하되, 올해는 별도의 예산이나 임대료 인상 등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사무실이 그만큼 축소되거나 접근성이 떨어진 장소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물론 광주시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교류센터 측의 문제라면 국한해서는 곤란할 일이다. 현재 이 지역에 '외국인 5만 명 시대'가 열렸고,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어떤 식이든 지원에 인색해선 안 된다.

예산 마련이 여의치 않을 경우 외부 기업이나 기관·단체의 지원 등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지구의 기부, 시민들의 모금 등을 유도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지역에 유일한 국제교류센터가 위축되고 제 역할을 못한다면 외국인들을 이방인으로 취급한다는 인식만 낳을 뿐이다.

無等鼓

세계 IT(전기전자)시장이 변화의 요동을 치고 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휴대 폰의 대명사였던 노키아 몰락, 애플의 세계 시가총액 1위의 등극, 구글의 모토로라 모바일사업부 인수, 휴렛 팩커드(HP)의 PC사업부 매각 및 웹OS사업 철수가 그것이다.

HP의 PC사업 매각은 그 상징성으로 볼 때 IT시장 지각변동의 화룡점정으로 볼 수 있다. 세계 1위 기업이 스스로 시장을 버린 HP의 결정은 PC산업의 쇠퇴를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수십 년간 컴퓨터 하드웨어 관련 대표적 제조업체로 인식된 IBM과 HP가 산업 성장성이 정체됐다는 이유로 핵심 업종을 바꿔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업종으로 변신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IBM의 신속한 선제 대응으로 창립 100주년을 맞은 지금 제2의 중흥기를 누리게 된 것이다.

패러다임과 환경의 부침이 잦은 IT산업에서 과감하고 신속한 결정은 기업의

사활을 결정짓는다. 반면 IT코리아는 20년 만에 고질적인 '소프트 웨어 홀대'로 전체 산업 붕괴까지 걱정해야 할 상황이 됐다.

미국의 IT산업이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은 혁신으로 무장한 새로운 기업들이 대거 진입하고 처절한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마음에 부합하면서 일부는 그 대가를 충분히 보상받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은 벤처기업들의 열악한 환경, 건전한 인수합병 문화의 미비, 검증된 투자만 진행하는 벤처캐피탈 업계의 성향, 동반성장 정책이 표류하며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한글타래하는 글로벌 IT리더들을 보며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바꾸고 준비해야 할 것인지 뼈를 깎는 성찰이 필요하다. 혁신과 변화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목소리에 힘을 보태 새로운 기적을 이뤄 나가야 할 시점이다.

/최재호 정경부 차장 lion@kwangju.co.kr

변화와 혁신



의료 칼럼



손영해

최근 벌에 쏘여 사망한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7월부터 9월까지의 일년 중 벌들의 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이고, 올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 벌의 활동시기가 늦어지는 바람에 8월 하순부터 9월까지 집중적으로 벌들의 활동이 활발할 것이라 한다.

서식지의 파괴, 대기 오염, 살충제 살포, 전자파, 지구온난화 등에 의해 벌이 감소하고 있고 이는 식량생산량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벌을 보호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필자 역시 어린 시절 벌에 쏘여 심하게 고생한 기억이 있다. 벌 특히 말벌에 물리지

'벌 알레르기'를 조심해야 하는 이유

않도록 각별한 조심이 필요하고 인가에 벌집이 있는 경우 제거해야 한다.

잔벌이 많고 황갈색을 띠며 몸집이 큰 말벌은 땅속이나 나무의 빈 공간, 집 벽, 창문, 등골고 큰 벌집을 만들고 아주 공격적이다. 야외활동을 할 때 향수나 향이 진한 화장품은 피하고 밝은 색깔의 옷을 입지 않는 것이 좋다. 긴 상의와 하의를 입고 양말을 신고 얇은 장갑을 끼어 노출을 피한다. 벌의 공격 시 뛰어서 도망가지 말고 현장에서 20~30m 정도 떨어져 주변보다 낮고 그늘진 곳에서 자세를 낮추는 것이 좋다.

말벌 짙은 꿀벌보다 독성이 강하므로 말벌에 쏘일 경우 병원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벌에 물린 경우 신용카드나 전화카드를 이용해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밀어 벌침을 밀어내서 뺀 후 상처부위를 비눗물로 깨끗이 씻는다. 손에 물린 경우는 반지를 뺀다. 찬물이나 얼음찜질을 하면 물린 부위가 더

수월하다.

벌에 쏘인 부위는 가렵고 부풀어 오르면서 아프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간혹 쏘인 후 48시간까지 심하게 부어오르다가 7일 후에 붓기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 가렵고 붓는 경우 스테로이드 연고나 항히스타민 연고를 바르고 항히스타민제나 소염제를 복용하기도 한다.

체질에 따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강한 전신 알레르기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생길 경우 응급처치 필요하다. 벌에 쏘인 후 급속히 증상이 나타나서 수 시간 안에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 마스크에서 보고되는 사례들이 이 경우에 속한다.

아토피체질이냐 천식이 있는 경우는 알레르기반응이 일어날 확률이 높고 노인이나 당뇨, 심장질환, 호흡기질환이 있는 경우 알레르기반응이 일어났을 때 치사율이 높으므로 벌에 쏘이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변을 돌아보니(一步二步三歩立)/ 산은 푸르고 바위는 이끼가 끼어 하얗고 그 사이사이 꽃이 피어 있네(山靑石白開蘭花)/ 만약 이 시대의 최고 화가를 불러 저 아름다운 경치를 그려 볼들(若使畫工模此境)/ 저 숲에서 뛰노는 새의 목소리를 여저 화폭에 담을 수 있을까(其於林下鳥聲荷)?

이 시를 읽다 보면 월출산을 보고 지은 시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친근감이 든다. 지난해 국립공원 인지도 설문 조사 결과 17%만이 월출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다고 답했고, 나머지 83%는 어느 군단위 야산 정도로 생각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호남의 소금강'으로 일컬어지는 월출산 국립공원에 부여해 느낀 것은 지역주민들이 그냥 '월출산'이라고만 부른다는 것이다. '월출산 국립공원'이라는 정확한 이름을 불러줘야 한다. '월출산 국립공원'이 아닌 월출산은 한낱 동네 야산일 뿐이다. 이름과 직책을 함께 불러줘야 월출산은 신령한 산으로서 지역에 보답하게 될 것이고 지역민들의 자긍심이 될 것이다.

<월출산 국립공원 소장>

기고



정장훈

남도 영암의 월출산 국립공원으로 발령 난지도 벌써 1개월이 지나간다. 청소년기의 필자는 영암 대지위에 우뚝 솟은 월출산을 남모르게 흠모하며, 호연지기(浩然之氣)를 키웠다.

월출산은 지난 1988년 6월 우리나라 20개 국립공원 가운데 마지막으로 국립공원에 지정됐다.

1967년 지리산이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당시, 많은 국민은 국립공원에 대한 개념이나 취지보다는 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었다. 국립공원의 지정 취지는 살아있는 자연생태계를 온

'월출산' 아닌 '월출산국립공원'으로 부름시다

전히 보전해 후손에게 물려줄은 물론 지속 가능한 이용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는 여가 휴양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보면 관광객의 방문이 늘어남과 동시에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무분별한 개발로 녹지공간이 파괴되고 콘크리트 시설물이 난립한다면 국립공원은 여가 휴양공간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그에 따라 국민은 순식간에 발길을 돌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역의 쇠퇴를 불러올 것은 자명한 일이다.

최근 몇몇 지자체에서 지역의 대표 공원들을 국립공원으로 지정 또는 승격시켜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국가대표 선수는 아무나 될 수 없듯이 아무 산이나 국립공원이 될 수 없다.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자연공원 중에서 우수한 자원을 가진 공원을 선별해 국가가 지정

하는 것이다.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이나,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 동·식물이 살고 있거나 학술적으로 연구가치가 높은 곳, 수려한 자연경관 등을 검토 대상으로 하고 있다.

월출산국립공원은 지난 2009년 11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카테고리 II(국립공원)로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국립공원이고, 한강 이남 최고의 자연공원이다. 계곡과 능선이 거의 압반으로 뒤덮여 산을 오르기 전 바라보는 순간부터 감동이 시작된다.

한걸음 한걸음 발자국을 옮기면서 주변을 돌아보면 황홀경에 빠져 들어가게 된다는 물론 '우리나라에도 이런 곳이 있구나'하고 감탄사를 연발하게 된다.

'김삿갓'(1807~1863)의 글 중에 '상경'(賞景)이라는 시가 있다. "한 발, 두 발, 걸음을 옮기며 세 발에 주

꽃도매업자 화환·조화 재활용 되팔기 단속해야

"죽은 자는 떠나도 화환은 남는다"는 말이 있다. 이는 병원 장례식장에서 사용된 조화가 재탕 3탕으로 재활용되고 있는 것을 빗댄 말이다. 장례식장뿐 아니라 예식장의 화환까지 재활용되고 있는 실태는 오래전부터 문제가 된 일이다.

조화나 화환을 재탕 3탕 할 경우 그 꽃을 받는 사람들이 속는 것은 물론, 그야말로 상가에 갔던 꽃의 일부가 결혼식장에도 올 수

있으니 이는 생각만 해도 불쾌한 일이다. 또한, 화환 농가들 모두를 죽이는 꼴이다.

하지만, 꽃 도매업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꽃의 재탕 3탕이 이뤄지고 있다고 하니 실로 충격적이다.

업자들은 미리 계약된 장례식장과 예식장에서 수거한 화환을 가지고 '근조' 혹은 '화환' 리본을 때어낸 뒤 시들거나 꽃잎이 많이 빠진 꽃을 화환에서 뽑아내고 그 부분만 판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민중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이대용·여천시 평려동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梁	편집국장 李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인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내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정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매체팀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 회 부 2200-616	조 사 팀 2200-571	디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 산 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